

#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에 관한 연구

이영익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전공 교수

## A Study on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Young-Ik Lee

Professor, Major of Oriental Sports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19년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실제 360명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중 이주 1세대의 경우 가족방문과 정체성유지가 1.5세대나 2세대보다 높다. 하지만,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참가동기의 경우 이주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높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두 집단 모두 긍정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주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전국체육대회 동안 부정적인 경험이 높다. 셋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이주 1세대의 경우 모국정체성이 1.5세대와 2세대는 거주국 정체성이 높다.

주제어 : 재외동포 세대, 전국체육대회 참가, 참가동기, 경험, 정체성교섭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NSF).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60 overseas Koreans who took part in the 100th NSF held in Seoul in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first generation participated in the NSF because of visiting family and maintaining Korean identity, the second generation took part in the event for self-realization. Second, the second generation had more negative experiences than the second generation during the NSF. Third, while the first generation negotiated more identity with origin, the second generation had more identity with settlement.

Key Words :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participation motivation, experience, identity negotiation

## 1. 서론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이유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해왔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이주현상은 이주를 보내는 나라와 이주를 받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거시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주를 오는 사람들과 거주하는 개개인들의 정체성 교섭에도 영향을 미쳐왔다[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주는 전 세계에 팽창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이는 한국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overseas Koreans)의 수는 이미 700만 명을 이미 넘어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숫자인 150만 명의 약 5배에 육박하고 있어 재외동포 관리(Overseas Korean management)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2].

2009년 재외동포 참정권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3,4]. 특히 많은 연구들이 재외동포들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면서 사회학과 이주(주)학 분야에서도 이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6].

이는, Baldassar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는 새로운 나라로 정착하면 끝나는 과정으로서 인식되어져왔기 때문에, 이주 후 발생하는 모국방문 경험과 이주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주 연구의 일부분으로 개념화 되지 못해왔다”[7].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발전된 교통과 통신은 이주자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이주자들로 하여금 초국적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하지만 Ali와 Sonn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경우 모국과 거주국 두 개의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있어서 이주를 결정한 1세대와 그들과 함께 동행한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주 후에 새로운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2세대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9]. 즉, 최근 연구들의 경우 스스로 이주를 결정한 1세대들은 모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 이전에 새로운 국가로 이주한 세대인 1.5세대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한 국가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들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정체성을 교섭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10-14]. 특히, 1세대는 여전히 모국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1.5세대와 2세대는 모국과 새로운 거주국 사이에 두 개의 다른 교육과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1세대와는 전

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정체성 교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체육대회가 세계한상대회와 더불어 세계 18개국으로부터 약 1800명의 재외동포들이 참가하는 단일 최대 체육축제가기 때문이다[3].

1920년 제 1회 전 조선 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하는 전국체육대회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저항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해방이후 전국체육대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경기력 향상’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해왔다[15]. 특히, 1960년대 경제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시기에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를 초청하면서 전국체육대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재외동포 전국체전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참가범위를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로 확대하면서 독립적인 재외동포 전국체전을 국내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 개최되는 대회와 같은 장소와 시간에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모국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데 스포츠를 이용하며 발전되어져 왔다[16].

2005년 이후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에게 항공료와 체재비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 재외동포들의 모국방문을 도움으로써 한국인으로써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3].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그들이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3].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스포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주 세대 간에 모국방문을 통한 경험이 어떻게 세대 간 정체성교섭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18개 재외동포 국가들로부터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정체성 교섭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 간 지각된 경험과 문화정체감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14	59.4
	Female	146	40.6
Participation type	Player	192	53.3
	Staff	96	26.7
	Player & staff	30	8.3
	Cheer team.	42	11.7
Generation	1st Generation	256	71.1
	1.5 & 2 <sup>nd</sup> Generation	104	28.9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Argentina	4	1.1
	Australia	12	3.3
	Brasil	4	1.1
	China	56	15.6
	England	8	2.2
	Guam	28	7.8
	Germany	13	3.6
	Hong Kong	36	10.0
	Indonesia	16	4.4
	Japan	18	5.0
	New Zealand	44	12.2
	Philippine	46	12.8
	Saipan	18	5.0
	United States	57	15.8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은 2019년 서울지역에서 개최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 18개국으로부터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재외동포를 모집단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은 모집단으로부터 표집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개최되기 전날 열린 재외동포선수단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자료수집이 가장 적합한 날짜가 개막식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막식을 위해서 대기하

고 있는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에 보조연구자 5명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무선표집방법(random sampling)으로 14개국 42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설문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무응답이나 이중응답) 6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2 조사도구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문항, 참가동기 1문항,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참가경험 6문항, 정체성교섭 4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재외동포들 세대는 이주를 결정한 1세대와 이주결정자들과 같이 이주를 한 자녀들인 1.5세대, 거주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의 참가동기는 선행연구들(17,18,19)에서 사용한 모국 방문동기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는 관광, 가족 방문, 스트레스 해소, 사회관계, 정체성유지, 자아실현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이다.

다음으로 Gomez가 개발하고 백선아가 한국어로 번안한 재외동포 방문경험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여 표준화시킨 ‘지각된 경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17,18].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이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 세대간 정체성교섭에 관한 설문지는 Gomez와 Taylo 그리고 Doherty가 개발하고 표준화시킨 척도이다[17,19].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이다.

### 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식은 주성분분석이며, 직각회전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초기 고유값을 1.0이상으로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the NSF

Question	Positive experience	Negative experience
item 1(welcome)	<b>.849</b>	-.156
item 3(kindness)	<b>.842</b>	.069
item 6(recognition)	<b>.826</b>	.081
item 4(fairness)	<b>.711</b>	-.066
item 5(ignorance)	-.214	<b>.882</b>
item 2(disparagement)	-.039	<b>.821</b>
item 7(dislike)	.140	<b>.630</b>
eigenvalue	2.684	1.889
variance(%)	37.326	26.254
accumulation(%)	37.326	63.580
Cronbach'a	.823	.683

<Table 2>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의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참가경험은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긍정적 참가경험 요인은 4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849-.711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참가경험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부하량은 .882-.630로 나타나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경험과 부정경험 요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각각 .823과 .683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설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dentity negotiation

Question	receiving country identity	home country identity
item 3(receiving country)	<b>.921</b>	-.044
item 4(receiving country)	<b>.888</b>	-.199
item 2(home country)	-.072	<b>.872</b>
item 1(home country)	-.151	<b>.846</b>
eigenvalue	2.005	1.176
variance(%)	50.132	29.389
accumulation(%)	50.132	79.521
Cronbach'a	.668	.800

<Table 3>은 정체성교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거주국정체성과 모국정체성 두 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921-.888로 나타났으며, 모국정체성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872-.846이었으며, 신뢰도 값은 각각 .668과 .800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 2.4 조사절차

본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자 5명과 연구자 총 6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전에 연구대상들에게 직접 설문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후에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2.5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설문지를 가장 먼저 연구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항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 즉, 이중기입이나 아예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무기입 설문지 등을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는 총 수집된 420개 중 60개였다. 이러한 자료를 먼저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360개의 자료들을 컴퓨터에 먼저 숫자형태로 개별 입력(Coding)시키고, IBMSPSS 23.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4>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r$ )는 -.257에서 .436이었으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계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아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더불어 모든 변수에서 상관계수 값이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

### 3.2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의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 3.2.1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의 차이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Sightseeing	1									
2. Visiting family	.436**	1								
3. Releasing stress	.378**	.238**	1							
4. Socializing with others	.235**	.235**	.200**	1						
5. Maintaining identity	.221**	.131*	.116*	.432**	1					
6. Self-realization	-.041	-.134**	.020	.108*	.081	1				
7. Positive experience	.167**	.123*	.163**	.424**	.433**	.165**	1			
8. Negative experience	.246**	.227**	.340**	-.008	-.067	-.045	-.071	1		
9. Identity with origin	-.036	-.053	-.040	.055	.210**	.011	.094	-.114*	1	
10. Identity with settlement	.206**	.115*	-.006	.010	.015	-.006	-.042	.201**	-.257**	1

\*p<.05 \*\*p<.01

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One-way ANOVA on participation motiv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SF

	1 <sup>st</sup> generation			1.5 & 2 <sup>nd</sup> generation		
	M	SD	n	M	SD	n
Sightseeing	2.17	1.08	256	2.18	1.16	104
F value	.013					
Visiting family	2.75	1.16	256	2.49	1.12	104
F value	3.680*					
Releasing stress	1.98	1.09	256	2.15	1.12	104
F value	1.771					
Socializing with others	2.89	1.03	256	2.73	1.07	102
F value	1.838					
Maintaining identity	3.70	0.89	254	3.18	1.16	104
F value	20.595***					
Self-realization	3.15	1.20	254	3.76	1.08	104
F value	20.517***					

\*p<.05 \*\*\*p<.001

<Table 5>에 따르면, 참가동기는 가족방문, 정체성유지, 자아실현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으로 이주를 결정한 1세대들(M=2.75)의 경우 1.5세대나 2세대들(M=2.49)에 비해서 모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 정체성유지를 위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동기 역시 외국으로 이주를 결정한 1세대들(M=3.70)이 1.5세대나 2세대들(M=3.189)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체육대회에 선수로서 자기실현을 위한 참가동기는 1.5세대나 2세대들(M=3.76)이 1세대들(M=3.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2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의 차이

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해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대와 2세대(M=2.04)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1세대 재외동포들(M=1.86)보다 부정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Table 6. One-way ANOVA on participation experience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SF

	1 <sup>st</sup> generation			1.5 & 2 <sup>nd</sup> generation		
	M	SD	n	M	SD	n
Positive	3.26	0.77	256	3.12	0.96	104
F value	2.267					
Negative	1.86	0.66	256	2.04	0.77	104
F value	5.090*					

\*p<.05

3.2.3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의 차이

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해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1세대들(M=3.99)이 모국의 정체성이 1.5세대나 2세대들(M=3.82)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1.5세대나 2세대들(M=2.98)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1세대들(M=2.56)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Table 7. One-way ANOVA on Identity negoti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SF

	1 <sup>st</sup> generation			1.5 & 2 <sup>nd</sup> generation		
	M	SD	n	M	SD	n
Identity with origin	3.99	0.65	254	3.82	0.86	104
F value	4.049*					
Identity with settlement	2.56	0.86	256	2.98	0.86	104
F value	17.482***					
*p<.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 중 이주를 결정한 1세대들과 1세대와 함께 이주를 하거나 혹은 거주국가에서 태어난 해외동포들 사이에 참가동기와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교섭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참가동기는 세대 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한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를 결정했던 1세대들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더불어 모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들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대

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airley, Gammon 그리고 Joseph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1,22]. 구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강한 모국의 정체성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가족방문과 같은 모국에 대한 향수는 정체성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1세대들의 전국체전 참가동기의 가족방문과 정체성유지가 1.5세대나 2세대들보다 높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모국의 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한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통해 선수로서 메달획득을 통해 성취감을 높임은 물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국체육대회에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재외동포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모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국체육대회는 국내최고의 경기력을 겨루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나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정부 역시 해외동포들의 참가동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대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3].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모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세대 간 큰 차이 없이 두 집단에서 모두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자신들이 모국에서 무시당하거나, 한국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중앙정부나 실제 대회를 개최하는 시,도에서는 1.5세대나 2세대들에게 보다 다양한 모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서 부정적인 경험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모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지만 여전히 1.5세대나 2세대들의 경우 모국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석인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2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 2세를 연구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통념상 세대가 지날수록 민족정체성이 낮아진다는 것과는 달리 최근 ‘한류’의 세계

화로 인해서 한국을 자랑스러운 모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25,26]. 무엇보다도 1세대의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한 반면,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다집단 정체성을 교섭하는 것을 고려할 때,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와 경험 그리고 정체성교섭은 세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Chang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재외동포들의 경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 오직 한 정체성을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집단 정체성 즉, 초국적 정체성을 교섭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처럼, 여전히 세대 간에의 참가동기와 경험은 상이하므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정체성교섭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 특히 1.5세대나 2세대들이 자신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목적 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는 이주 1세대의 경우 가족방문과 정체성유지가 1.5세대나 2세대보다 높았으나, 자아실현을 위한 참가동기의 경우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높았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두 집단 모두 긍정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인 경험에서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높다.

셋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이주 1세대의 경우 모국정체성이 1.5세대와 2세대는 거주국 정체성이 높다.

본 연구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후속세대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교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대는 크게 두 집단으로 실제 이주 역사가 긴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3, 4세대를 포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인 세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분명 참가동기나 경험 그리고 정체성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설문지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면담이나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체성교섭은 모국과 거주국 두 개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전 지구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초국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체성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L. Basch, N. Glick Schiller & C.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anghorne, PA: Gordon and Breach, 1994. <https://doi.org/10.4324/9780203347003>
-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9). *A summary of overseas Kore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3] I. Y. Chang, M. Sam, & S. Jackson (2017). Transnationalism, return visits and identity negotiation: South Korean-New Zealanders and Korean National Sport Festiva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2(3), 314-335. <https://doi.org/10.1177/1012690215589723>
- [4] I. Y. Chang. (2015).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eisure Sports as a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Lifestyle Migration Decision Making: A Case of South Korean Immigrants in New Zealan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8(1), 89-107. DOI : 10.22173/jksss.2015.28.1.89
- [5] S. Castles, & M. J. Millers.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Palgrave-Macmillan and Guilford Books.
- [6] A. Babacan, & S. Singh. (2010). *Migration, belonging*

- and the nation stat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7] L. Baldassar. (2001). *Visits home: Migration experiences between Italy and Australia*.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8] T. Faist, M. Fauser, & E. Reisenauer. (2013). *Transnational mig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9] L. Ali, & C. Sonn. (2010). Constructing identity as a second-generation Cypriot Turkish in Australia: The multi-hyphenated other. *Culture and Psychology*, 16(3), 416-436.  
https://doi.org/10.1177/1354067X10361398
- [10] S. Benesch (2008). Generation 1.5 and its discourses of partiality: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7(3/4), 294-311.  
DOI: 10.1080/15348450802237954
- [11] J. W. Berry, J. S. Phinney, D. L. Sam, & P. Vedder.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2] M. Y. Danico. (2004).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 American in Hawaii*.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13] B. Pham. (2011). *Generational struggles and identity conflict among 1.5 generational Vietnamese Americas: Finding a middle grou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ast Carolina University.
- [14] K. Park. (1999). I really do feel I'm 1.5!: The construction of self and community by young Korean Americans. *Amerasia Journal*, 25(1), 139-163.  
https://doi.org/10.17953/amer.25.1.07x6826254g3567w
- [15] M. Kim.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Seoul: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16] H. S. Yi. (2015). Competition between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in the discourse on a naturalized sport celebrity, Victore Ah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8(1), 153-182.  
DOI : 10.22173/jkss.2015.28.1.153
- [17] E. Gómez. (2006). The ethnicity and public recreation participation (EPRP) model: An assessment of unidimensional and overall fit. *Leisure Sciences*, 28, 245-265.  
https://doi.org/10.1080/01490400600598087
- [18] S. A. Baik. (2012).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lturation and sport particip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19] T. Taylor, & A. Doherty. (2005). Adolescent sport, recreation and p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of recent arrivals to Canada.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0(2), 211-238.  
https://doi.org/10.1080/13573320500111770
- [20]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21] S. Fairley, & S. Gammon. (2005). Something lived, something learned: Nostalgia's expanding role in sport tourism. *Sport in Society*, 8(2), 182-197.  
DOI: 10.1080/17430430500102002
- [22] J. Joseph. (2014). Culture, community, consciousness: The Caribbean sporting diaspora.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9(6), 669-687.  
https://doi.org/10.1177/1012690212465735
- [23] I. Y. Chang. (2016). Overseas Korean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identity negoti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473-481.  
https://doi.org/10.14400/JDC.2016.14.10.473
- [24] S. Lee. (2015). Generational difference analysis on Korean-Americans identity. *Journal of Diaspora Studies*, 9(1), 189-211.
- [25] I. O. Jeon & M. S. Kang. (2013). value of the property on the impact of the Perceived value of accommodation on tourism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0), 79-94.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0.079
- [26] H. Y Jang, H. J. Park & S-H. Choe. (2016). Cultural Tourism Product Development Research of Muju Taekwondo Institu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351-357.  
DOI: 10.14400/JDC.2016.14.2.351

## 이영익(Young-Ik Lee)

[상위]



- 1989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체육학 학사)
- 1995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 석사)
- 2004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운동건강관리, 운동재활
- E-Mail : undongsarang@dhu.ac.kr